



프로야구 광주 개막전(7일)에 이어 8일 KIA 타이거즈와 SK 와이번스의 경기가 열린 무등경기장야구장에 많은 관중이 찾아 응원을 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KIA '4월 악몽' 또 ...

'4월 악몽'에서 벗어나라. 최정에 멤버 이용규의 부상으로 KIA 타이거즈 초반 행보에 비상이 걸렸다. 지난해 안방마님 김상훈의 부상과 맞물려 '잔인한 4월'을 보냈던 KIA는 버리고 버렸던 2009시즌에서도 이용규의 부상으로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SK 와이번스와의 이상한 악연이 이어졌다. SK 와이번스와의 이상한 악연이 이어졌다. 지난해 4월10일 SK와의 홈경기. 0-1로 뒤지던 2회말 김광현을 상대로 중전안타를 치고 출루했던 김상훈이 장성호의 2루타 때 홈으로 쇄도하다 발목인대 부분 파열로 전반기를 마감해야 했다. 김상훈의 투혼 속에 점수는 1-1이 동점이 됐지만 경기는 1-4, KIA의 패로 끝났다.

이후 KIA는 주전 포수의 부상으로 마운드가 흔들리면서 4월까지 8승19패의 참담한 성적을 기록했다.

작년 주전 줄부상에 올 채종범 이어 이용규 부상

초반 레이스 3연패 부진...지난해 성적표와 비슷

지난 7일 홈 개막전에서 악몽이 되살아났다. 상대는 SK, 투수 역시 김광현이었다. 이번에는 수비중에 문제가 발생했다. 3-1로 앞서 있던 4회초 SK 정근우의 중월 타구를 잡기 위해 쫓아 가던 이용규가 펜스에 부딪히면서 쓰러졌다. 검진결과 우측 경골 내측 상과 골절(복숭아뼈 골절)로 6주 진단이 나왔다. 팀은 이날 4회 3실점을 하면서 3-4로 역전패를 당해 3연패를 기록했다.

지난해 KIA의 4강 발목을 잡은 원인 중 하나는 주전들의 부상이었다. 전지훈련에서

는 최희섭, 서재응이 두툼과 햄스트링으로 고전한 데다 김상훈, 장성호의 부상이 줄줄이 이어졌다.

올 시즌 캠프는 '이상무'였다. 최희섭, 서재응이 완벽하게 전지훈련을 소화하는 등 주전들의 움직임이 활발했다. 하지만 기대를 모았던 외야수 채종범이 시범경기 도중 십자인대 파열로 주저 앉았다. 지난해 김상훈의 공백을 완벽하게 메우며 자리를 잡은 포수 차일목도 어깨 통증으로 개막 엔트리에 합류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용규마저 부상병이 됐다.

채종범은 10개월의 재활진단이 내려지면서 사실상 시즌을 접었다. 이용규도 최소 6주의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당분간 전력차질이 불가피하다.

그나마 재할중인 차일목이 타격에는 큰 문제가 없어 10일부터 2군에 합류해 복귀를 준비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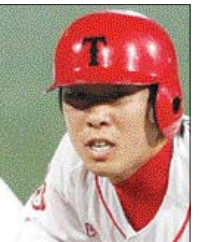
경기 흐름도 지난 시즌과 비슷하다. 지난해 삼성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타선 불발로 재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올 시즌 두산과의 개막전에서도 1회 대량 득점기회를 놓치며 역전패를 당했다.

이후 개막전 2연패를 하고 돌아온 KI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홈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데다 이용규의 부상까지 겹쳤다.

진퇴양난에 빠진 KIA의 악몽탈출을 위해 '집중력'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KIA 타이거즈 '루키' 안치홍 첫 안타·첫 도루... "지켜봐 달라"



KIA 타이거즈 '루키' 안치홍의 2009 시즌이 시작했다. KIA 내야수 안치홍이 7일 SK 와이번스와의 홈경기에서 첫 안타를 신고했다. 4회 대수비로 들어갔던 안치홍은 5회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타석에 들어섰다. 앞선 4. 5일 두산 베어스와의 개막 2연전에서 대주자로 나섰지만 타석에 들어선 건 처음이었다.

경기 흐름도 지난 시즌과 비슷하다. 지난해 삼성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타선 불발로 재역전패를 당했던 KIA는 올 시즌 두산과의 개막전에서도 1회 대량 득점기회를 놓치며 역전패를 당했다.

이후 개막전 2연패를 하고 돌아온 KIA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홈 개막전에서도 승리를 신고하지 못한데다 이용규의 부상까지 겹쳤다.

진퇴양난에 빠진 KIA의 악몽탈출을 위해 '집중력'이 절실하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꿈의 무대 우승할 준비 됐다"

차세대 골프황제를 꿈꾸는 영건들이 제73회 마스터스골프대회 첫날부터 격돌한다. 대회조직위원회는 8일(이하 한국시간)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과 유럽의 유망주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일본의 스타 이시카와 료를 같은 조에 편성하는 등 1.2라운드를 함께 할 파트너를 발표했다. 앤서니 김이 속한 조는 10일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파72·7천435야드)에서 오전 3시3분 티오프한다.

난생 처음 마스터스대회에 출전하는 앤서니 김은 최근 감기 때문에 고생했지만 "데

PGA 마스터스 내일 개막...우즈 우승 관심

앤서니 김·이진명 등 '차세대 황제' 대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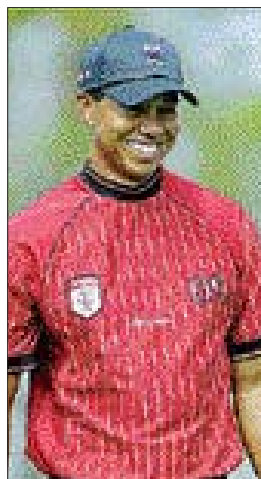
뷔 무대에서 우승할 준비가 됐다"며 대담한 출사표를 던지기도 했다. 또 하나의 영건 뉴질랜드교포 이진명(19)은 2008년 US아마추어골프선수권대회 우승자 자격으로 초청장을 받아 작년 대회 우승자 트레버 이멜만(남아공)과 동반 플레이하는 영광을 얻었다.

이멜만, 아담 스콧(호주)과 같은 조에 편성된 이진명은 10일 오전 2시41분 출발한다. 최경주(39·나이키골프)는 케니 페리(미국), 알바로 키로스(스페인)와 10일 오전 2시30분, 양용은(37·테일러메이드)은 로버트 엘런비(호주), 헌터 메이헌(미국)과 오전

1시57분에 첫 라운드를 시작한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는 스투어트 싱크(미국), 지브 밀카 싱(인도)과 동반플레이를 펼치며 우승컵 사냥에 나선다. 티오프 시간은 10일 오전 2시52분.

이밖에 3연속 메이저대회 우승을 노리는 파드리크 헤링턴(아일랜드)은 마이크 웨어(캐나다), 아마다 류지(일본), 필 미켈슨(미국)은 짐 퓨릭(미국),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와 1.2라운드에서 동반 플레이를 펼친다. 개막을 알리는 시타는 아널드 파머(미국)가 날린다.

/연합뉴스



우즈 "한국 선수들 기량 훌륭하다"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미국·사진)가 한국 선수들의 기량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우즈는 8일(이하 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골프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 선수들에 대해 평가해달라'는 질문에 "훌륭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라며 "최경주, 앤서니 김은 오래 알아온 사이고 데니 리는 최근 몇 차례 샷만

봤지만 골프를 즐기면서 좋은 내용의 경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우즈는 또 "외국 선수들이 마스터스에 많이 출전하게 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덧붙였다. 앤서니 김, 카밀로 비에가스(콜롬비아),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 등 신예들에 대해 우즈는 "앤서니 김과 비에가스는 지난해 훌륭한 시즌을

보냈다. 매길로이는 올해 두바이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라며 "이런 마스터스와 같은 큰 대회 경험을 더 쌓는다면 더 훌륭한 선수가 될 수 있다. 이들이 한 단계 더 발전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9일부터 열리는 마스터스대회 우승 가능성에 대해서는 자신 있게 답했다. "우승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질문에 "항상 그렇다"라고 말한 우즈는 "메이저대회를 4개 연속 우승한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번 주가 나에게 그 시작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미교포 앤서니 김(24·나이키골프)이 8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장에서 열린 마스터스골프대회 연습라운드 6번 홀에서 벙커 샷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